

우리 신앙의 핵심에 있는 정의

박성원

오늘날 우리 세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둘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것들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와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생사 문제입니다. 개혁주의 기독교인으로서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자적 입장을 취하고 긴급하게 행동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전환점이 넘어섰고, 농작물은 실패하며, 창조물 자체가 우리의 무관심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류의 미래는 인공지능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됨의 의미 자체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총회가 기후 재앙에 대응하여 신앙고백적 입장(*status confessionis*)을 선언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고백 과정(*processus confessionis*)을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982년 오타와 총회는 인종적 불의에 대한 *신앙고백적 입장(status confessionis)*을 선언했습니다. 1997년 데브레첸에서는 경제적 불의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신앙고백적 과정(*processus confessionis*)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2004년 역사적인 아크라 신앙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복음 자체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문제가 고백적 입장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에, 저는 이제 인공지능의 도전 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특이점의 도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창립자 겸 회장 클라우스 슈왈브는 제4차 산업혁명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단순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의 변화를 넘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인공지능 산업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 소통 방식, 생활 방식, 그리고

1<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15-12-12/fourth-industrial-revolution>

심지어 진실, 미디어, 정치, 사회 등을 이해하는 방식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2005년 당시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은 기술적 특이점이 2045년까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그 시점이 불과 5년 이내, 혹은 그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이점으로 가는 길에는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1. 챗봇 - 조연자 수준,
2. 추론 전문가 - 박사 과정 조교 수준,
3. 에이전트 - 전문가 수준,
4. 혁신가 - 자율 작업 수준,
5. 조직 - 인간 없이 작업 수준.

현재 우리는 에이전트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구글 딥마인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자체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파에볼브'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알파에볼브의 등장으로 이미 혁신가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말까지 인공지능이 개인용 컴퓨터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AI는 컴퓨터를 장악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일일이 뒤지는 대신, AI 기반 시스템이 컨텍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중 모달 AI를 통해 텍스트를 넘어 영상, 이미지, 오디오까지 인간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안경에 내장되어 실시간 AI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레스토랑/카페를 추천하며, 위험을 경고하는 등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모르는 언어로 된 책을 읽고 계신가요? 실시간으로 즉시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더 이상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학생, 교수진,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그 유용성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AI 유토피아

이 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긍정적 시각과 비판적/우려 시각입니다. AI 시대는 막을 수 없으며,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뒤쳐질 것입니다. 미래는 AI 활용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 시각입니다.

대기업들은 AI가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봄 서비스부터 의료, 법률, 교육, 문화, 심지어 영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래 삶의 모든 측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 우리의 본질, 심지어 생물학적 특성까지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진화가 정점에 달했다고 믿습니다. 안경이나 자동차처럼 우리는 항상 도구를 이용해 스스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기술은 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트랜스휴먼에서 포스트휴먼으로의 진화 개념으로, 인간은 기계와 융합하여 '로보틱스 인간(homo roboticus)'이 되고, 기계는 인간과 유사해져 '로보 사피엔스(robo sapiens)'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초인(Super Human)'—'신인류(Homo Deus)'—로 진화하여 죽음마저 극복하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

AI 디스토피아

그러나 비판적이거나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헨리 키신저, 유발 노아 하라리, 스티븐 호킹,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많은 이들이 AI 시대가 재앙적일 수 있으며 우리를 디스토피아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한다.²

가장 심각한 경고는 인공지능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인공지능 혁명의 시작을 알린 ChatGPT의 급속한 발전을 지켜본 구글의 최고 전문가이자 인공지능 개발 분야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트^{on3}는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우리가 인공지능 4.0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험이 현실적인지 묻자 힌트는 "그렇다"고 답하며 인류가 "지금까지 이런 것과 마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험의 확실성에 관해 그는 "종종 10~20% 확률로 우리를 멸종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힌트는 두 가지 유형의 위험을 지적한다. 첫 번째는 "인간이 AI를 오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다. 해를 끼치려는 개인이나 집단이 AI를 이용해 대규모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on.6}

대량 실업 외에도, 인공지능은 사이버 공격, 여론 조작, 선거 개입, 가짜 뉴스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창출할 수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 칭했고, 키신저는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하라리는 극소수의 초인들과 대다수의 무용지인들로 분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티븐 호킹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재앙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를 "악마를 소환하는 것"에 비유하며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불멸의 독재자"를 상상하기도 했다. 엘론 머스크는 한때 인공지능이 재앙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머스크는 이를 "악마를 소환하는 것"에 비유하며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불멸의 독재자"를 상상하기도 했다.

³ 2024년 AI 연구로 노벨상 수상자

⁴ 구글의 동료인 일리아 수츠케버(Ilya Sutskever) 역시 위험성을 인식하고 회사를 떠나 인공지능 안전에 초점을 맞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⁵ <https://www.youtube.com/watch?v=giT0ytynSgg>

⁶ 그는 이러한 개인들이 신애국주의나 파시즘 같은 이념과 결합될 때 특히 위험해진다고 강조한다.

정교한 사기. 얼굴, 목소리, 또는 전체 시나리오를 위조하는 AI 기반 사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이 수치는 1,200% 급증했다.

AI는 또한 전쟁 양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이버 전쟁은 1990년대 초 유고 전쟁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드론 같은 AI 전투 도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모두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충격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기반 전투 프로그램 '하브소라'(הברסור, '복음'을 의미)로, 하마스 구성원을 추적하고 표적화한다. 인공지능이 아파트나 병원 같은 건물에 진입하는 하마스 구성원을 식별하면 해당 건물을 공격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다.⁷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한 언론은 '하브소라'를 전장의 '대량 암살 공장'이라 칭했다.⁸

진정한 공포는 인공 초지능(ASI)에서 비롯된다.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AI다. 힌턴은 ASI가 인류를 말살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챗봇이 자체 언어를 개발하면 사태가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게다가 AI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분자 생물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AI는 세포 구조를 분석하고 생명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비밀주의가 만연합니다.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스티븐 바틀릿은 빅테크 업계에 연결된 친구가 주요 AI 기업 CEO들이 비공개적으로 디스토피아적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경고했다는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⁹ 그러나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단순한 도구일 때는 우리가 지시한 대로만 작동한다. 그러나 도구들이 AGI(인공일반지능)를 갖게 되면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으며, ASI(인공초지능)는 인간에게 복종하기보다 인간을 통제하고 명령하려 할 수 있다. AI 전문가들은 모두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불평등 심화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규모 노동 시장 교란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발 하라리는 AI가 인류를 "극소수의 초인들과

⁷ https://theowp.org/israels-habsora-ai-system-makes-war-less-human/?utm_source=chatgpt.com

⁸ <https://www.972mag.com/mass-assassination-factory-israel-calculated-bombing-gaza/>

⁹ <https://www.youtube.com/watch?v=giT0ytynSgq>

무용한 대중들”¹⁰ “무용한 계급”은 단순히 실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고용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는 부와 권력이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의 손에 집중되면서 사회적·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불평등한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인공지능 안경 같은 것을 생각해 보라—이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뒤처지게 될 것이다.

급격한 일자리 손실은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며,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을 부추기고, 증오와 깊은 상실감의 증가를 촉발할 것이다.

지니 계수를 살펴보면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문맹'이나 대량 실업이 지속된다면 증오, 양극화, 폭력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은 극우 현상이 부상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민주주의 – 디지털 제국

인공지능 시대의 권력은 소수의 비선출 초엘리트, 즉 기술 거대 기업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며 자신들의 의제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엘론 머스크를 보라. 우리는 그가 비선출 인물로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목격해왔다.

허버트 사이먼의 '주의 경제' 개념¹¹은 오늘날 알고리즘 경제에 적용된다. 알고리즘과 참여 지표(좋아요, 클릭, 공유)는 사용자의 주의를 끊임없이 끌어당겨 그들이 구매하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 대학의 쇼샤나 주보프 교수는 수집된 데이터를 '행동 잉여(behavioral surplus)'라 명명한다. 온라인에 남기는 모든 데이터는 '예측 상품'으로 전환된다.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의 습관을 유도하고 조작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며 구매하는 것을 형성한다. 그들은 이러한 통찰력을 이용해 사용자의 의식을 식민지화한다.

최근 사례로는 2016년 출시된 글로벌 인기 게임 포켓몬 고(Pokémon Go)가 있다.¹² 이는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 식민화의 명백한 사례이며,¹³ '주의력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¹⁰ 그의 저서 『호모 데우스』와 2017년 5월 24일자 가디언지 기사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목격하게 될 것인가?"를 참조하라.

¹¹ 허버트 사이먼은 1971년 '주의력 경제' 개념을 제안했다.

¹² 스마트폰 위치 기반 및 증강 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알고리즘은 소비와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주의를 현실 세계로 유도한다.

¹³ 이는 1990년대 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가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의 특징 중 하나로 지목한 바로 그 "의식의 식민지화"이다.

주보프는 알고리즘의 힘을 '빅 오더(Big Other)'라 부르며,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Big Brother)'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 시스템을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로 묘사하며,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의 의식을 조작해 통제권을 장악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NEFEA 협의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이들을 디지털 제국이라고 명명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힘을 그들의 제단에 바치도록 조종당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전혀 선출하지 않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무의식적으로 넘기도록 유도함으로써 작동하며, 우리의 인식은 완전히 후회된다. 주보프는 이를 "인식론적 쿠데타"라고 부른다.¹⁴

인간보다 똑똑한 AGI와 ASI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오늘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윤리적 지침과 규제 개발을 포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는 "구분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며 AI가 항상 자신이 AI임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라리는 "AI가 우리를 통제하기 전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시판 전 의약품을 검사하듯, AI 기술 출시를 위한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핵무기가 국제 협정을 통해 통제된 것처럼, 인공지능(AI)에도 국제적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규제는 모든 위험을 포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EU 규제는 군사적 AI 활용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핵 문제와 달리, AGI(일반인공지능)가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약속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자발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 지도자가 국제 협정을 무시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크고 강력한 AI 모델 개발은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모델은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소비합니다. 미국의 AI 혁명에는 92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에너지 사용은 AI의 성장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큰 위협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학적 성찰

이는 교회와 신학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은 변모하려 한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이 새로운 시대에 인간의 정체성을 성찰하도록 도전한다.

¹⁴ <https://www.youtube.com/watch?v=hIXhnWUmMvw>

기술 시대에서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21세기의 문턱에서 새 세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새 세기와 새 천년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낙관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신중했다. 기후 변화, 팬데믹, 전쟁, 극우주의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안타깝게도 비판적인 경고들은 오늘날 정확해 보인다.

21세기 새벽에 나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라는 성경 이야기를 자주 되새겼다. 뱀은 인간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지혜를 얻어" 신과 같아질 것이라고 유혹했다. 그것은 좋고, 바람직하며, 힘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신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현재의 기술 시대는 그 유혹을 반영한다. 인공지능과 인간 증강은 신과 같은 능력, 심지어 불멸까지 약속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내부자들로부터 경각심을 주는 경고를 들어왔다.

창세기의 나무 이야기가 가져온 근본적 결과는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인간들 사이, 그리고 인류와 자연 세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핵심 교훈은 무엇인가? 금단의 열매가 진정한 힘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듯이, 성찰 없이 기술적 '신과 같은' 힘을 추구하는 것은 바벨탑의 교훈과 지나친 야망의 위험성을 되풀이하며, 우리 인간적 유대감, 도덕적 기반, 자연 세계와의 관계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

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고 우리는 그 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AI 전문가들 스스로의 경고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017년, 한국의 '정신적·문화적 수도'로 알려진 안동시에 위치한 계몽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나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왑이 언급한 내용에 부응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정신적·문화적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안동시의 지원으로 5년간의 연구 프로젝트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성과 영성"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는 먼저 '인간성'을 성찰한 다음 '인간의 마음과 정신', '형성'을 성찰하고,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거쳐, 마침내 '우주적 영성'에 대한 성찰로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단순한 지능을 넘어선다. 지능 위에 인간은 이성, 마음과 영혼, 그리고 영성을 지닌다. 이러한 차원들은 고립되어 기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의 지능, 이성, 마음, 영성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더욱이 이 상호작용은 인간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 우주, 신성한 영역까지 확장되어 사고와 행동 양상을 깊이 있게 형성한다. 이러한 영적 차원 때문에 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독특한 역할을 지닌다.

교회의 역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 교회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주관적 정체성, 둘째, 인간성 이해, 셋째, 양육입니다.

주관적 정체성: 인공지능과 교류할 때면 종종 인간과 말의 속도 관계를 떠올립니다. 말과 경주를 벌이면 반드시 지지만, 말을 제대로 타면 그 힘을 활용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삶에 접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삐를 잡고 목표를 설정한 뒤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면 우리 정체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주관적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Chat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를 유용한 백과사전, 방대한 도서관, 혹은 인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탁월한 보조 도구로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창조적 주체입니다. 지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우리는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성, 마음, 지혜, 영성이 필요합니다.

인류 문해력: 우리는 인공지능 문해력을 개발해야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해력, 사회적 문해력, 마음/정신 문해력, 우주적 영성 문해력도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양육: 클라우드 슈왈은 AGI 시대에 인간다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저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계가 더 똑똑해져도 인간은 더 똑똑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AI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장 뛰어난 기술보다 훨씬 더 현명한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입니다.

2025년 8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i4 컨퍼런스에서 힌턴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모성 본능'을 내재화하여 인간을 보호하고 돌보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ⁿ¹⁵,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해치지 않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n.¹⁶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사랑, 연민, 연대, 그리고 생명·정의·평화를 추구하는 데 기반을 둔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진정한 인간 본능을 되살려야 합니다. 현대에 크게 퇴색한 이러한 가치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훼손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¹⁵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technology/tech-news/godfather-of-ai-geoffrey-hinton-warns-ai-could-wipe-out-humanity-and-the-only-way-for-survival-is/articleshow/123317898.cms?utm_source=chatgpt.com

¹⁶ https://www.techradar.com/ai-platforms-assistants/godfather-of-ai-says-chatbots-need-maternal-instincts-but-what-they-really-need-is-to-understand-humanity?utm_source=chatgpt.com

실질적으로 교회와 신학 기관들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윤리적 이해력, 비판적 사고, 영적 형성을 함양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공지능의 도덕적, 사회적, 생태적 영향에 대한 대화의 장이 되어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기보다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학 교육은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 윤리를 포함해야 하며 지혜, 분별력, 관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인류를 지성, 정신, 마음 그리고 우주적 영성에 기반을 두게 함으로써, 교회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인간이 자신의 주체성, 도덕적 나침반, 그리고 서로와 창조계, 하느님과 교감하며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대응 - 제안

저는 이 총회가 기후 재앙에 대응하여 신앙 고백적 선언(*status confessionis*)을,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신앙 고백적 과정(*processus confessionis*)을 선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